

“과감하게, 자신 있게” 페퍼스, 후반기 반등 ‘시동’



전반기 9연패 뒤 분위기 전환 노력
범실·리시브 안정·멘털 관리 중요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시즌 반환점을 돌며 후반기 반등을 위한 목표 재정비에 들어갔다.

2년 차 사령탑 장소연 감독은 “처음 출발이 좋았던 만큼 그 흐름을 이어가야 했는데, 연패가 길어지면서 아쉬움이 더 컸다”고 전반기기를 돌아봤다.

페퍼스는 2라운드 중반까지 리그 2위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 성적으로 전반기를 보냈지만, 이후 9연패에 빠지며 6위까지 내려앉았다.

장 감독은 “선수들과 대화를 많이 나누고 있다. 후반기에 경기가 충분히 남아 있고, 반전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으니 용기를 갖고 힘내서 하자고 말하고 있다”고 후반기 반등을 위한 분위기 전환을 강조했다.

전반기 성과로는 ‘극복 경험’이 쌓였다는 점을 꼽았다.

장 감독은 “리드를 빼앗겼다가도 극복하는 경기가 많았다. 그래서 이번 시즌 ‘위닝 멘탈리티’가 상당히 좋아졌다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는데, 그게 길게 유지가 안 된 부분이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페퍼스의 후반기 반등을 위해 가장 먼저 불잡아야 할 과제로는 ‘범실’과 ‘리시브 안정’을 꼽았다.

장 감독은 승부처에서 소극적으로 할수록 오히려 실수가 반복될 수 있다고 보고 과감한 플레이를 주문하고 있다.

그는 “각자 위치에서 자기의 몫을 해줄 건 해줘야 한다”면서 “범실에 대해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범



시페퍼스 선수들이 지난 8일 광주페퍼스타디움에서 흥국생명과의 홈 경기를 앞두고 훈련을 하고 있다.

/설혜경 기자 sir@kwangju.c.kr



장소연 감독

실 할까 두려워서 주춤주춤 플레이를 하면 소극적으로 변한다. 그래도 범실이 나오는데, 그러면 차라

리 과감하게 자신 있게 하다가 범실해라”라고 덧붙였다.

리시브에 대해서도 방향은 분명했다.

장 감독은 “리시브는 기술적인 것도 있지만 50% 이상은 자신감이다. 자신감은 말로 생기지 않는다. 결국 훈련으로 쌓아야 한다”며 “리시브는 많이 받아 봐야 한다. 자신이 없는데 ‘자신감을 가져라’ 해서 자신감이 생기는 게 아니다. 이는 훈련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후반기 일정이 빽빽해지는 만큼 체력 관리와 함께 연패 상황에서 ‘멘털 관리’의 중요성도 빼놓지 않았다.

장 감독은 경기 중 작전타임에서 전술 주문보다 “할 수 있다. 해보자, 끝까지 집중하자”는 메시지를 더 많이 건넨다.

이에 대해 그는 “강하게 어필하고 주문하고 이런 건 연습 과정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경기장에 들어갔을 때는 잘할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게 더 선수들한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기에서) 지고 있으면 선수들이 못한 것에 대한 잔상이 많이 남는데, 그걸 빠르게 털고 다 같이 힘을 모아 서로서로 도와주며 열심히 하자”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덧붙였다.

2라운드 중반부터 이어진 길었던 9연패를 끊어낸 과정 역시 한 장면이 아닌 ‘역할 수행’에서 찾았다.

장 감독은 “특정 장면 하나가 터닝포인트가 됐다”며 “기보다는 각 포지션이 맡은 역할을 제자리에서 해냈을 때 승리가 따라왔다”며 “선수들의 간절함과 역할

수행이 합쳐졌을 때 결과가 잘 나온다”고 말했다.

후반기 목표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간다.

페퍼스는 시즌 초 ‘매 라운드 3승’ 페이스를 목표로 세웠지만 좋은 흐름을 이어가지지 못했다.

그럼에도 장 감독은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라며 “우리가 처음 세웠던 목표를 다시 한번 상기하고, 남은 라운드에서 하나씩 쟁겨가겠다”고 말했다.

페퍼스는 13일 4라운드 네 번째 경기로 대전충무체육관에서 정관장과 맞붙는다.

리그 6위 페퍼스(7승14패-승점 21)와 7위 정관장(6승15패-승점 18)의 격차는 승점 3점으로 ‘벼랑 끝 승부’가 펼쳐진다.

치열한 순위 싸움 한복판에서, 페퍼스가 승리로 후반기 반등 출발선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연수 기자 training@kwangju.co.kr



슈퍼컵 품었다 바르셀로나 선수들이 11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에서 열린 스페인 슈퍼컵 결승에서 레알 마드리드를 3-2로 꺾고 트로피를 들어 올리며 기뻐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태훈, LIV 골프 프로모션 우승...시즌 출전권 확보

한국프로골프(KPGA) 투어에서 활동하던 교포 선수 이태훈(35·캐나다·사진)이 LIV 골프 프로모션 대회에서 1위에 올라 2026시즌 LIV 골프 리그에서 뛰게 됐다.

이태훈은 12일 미국 플로리다주 리카토의 블랙다이아몬드 랜치(파70)에서 열린 대회 최종 4라운드에서 5언더파 65타를 쳤다.

전날 6언더파를 기록했던 그는 3·4라운드 합계 11언더파 129타를 써내 2위 비에른 헬레그렌(스웨덴·6언더파 134타)을 5타 차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 첫날 63명이 경쟁해 상위 20명을 추리고, 여기에 예선 면제 선수 20명이 가세해 2라운드를 펼쳤다.



태훈은 2017년 KPGA 투어와 아시안투어 공동 주관으로 열린 신한동해오픈에서 우승한 것을 계기로 KPGA 투어에 뛰어들어 3승을 더 거둔 선수다.

지난해엔 4월 우리금융 챔피언십을 제패하고

2라운드 상위 20위까지 3라운드에 진출, 이틀간 36홀 경기를 치러 3·4라운드 합계 성적으로 최종 순위를 가리고 상위 3명에게 올해 LIV 골프 출전권을 줬다.

2013년 아시안투어 신인왕 출신의 이태훈은 2017년 KPGA 투어와 아시안투어 공동 주관으로 열린 신한동해오픈에서 우승한 것을 계기로 KPGA 투어에 뛰어들어 3승을 더 거둔 선수다.

KPGA 투어 상금 2위, 제네시스 포인트 3위에 올랐다. 또 다른 교포 선수 앤서니 김(40·미국)은 이태훈, 헬레그렌에 이어 3위(5언더파 135타)에 올라 올해도 LIV 골프에서 뛰게 됐다.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통산 3승의 앤서니 김은 2012년 돌연 골프를 그만두고 종적을 감췄다가 2024년 LIV 골프를 통해 선수로 복귀했다.

지난해까지 두 시즌을 활동했으나 저조한 성적으로 강등됐다가 이번 대회로 재진입에 성공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8명의 한국 선수 중에는 왕정훈이 3·4라운드 합계 3언더파 137타로 공동 4위에 올라 가장 좋은 성적을 냈다.

2026시즌 LIV 골프 리그는 2월 4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아드에서 개막한다.

/연합뉴스

‘엄지 척’ 엄지성, FA컵서 시즌 2호골

스완지, 웨스트브로미치와 64강
승부차기 끝 5-6으로 아쉽게 제

잉글랜드 프로축구 챔피언십(2부)에서 활약하는 잉어 엄지성(23·스완지 시티)이 시즌 2호골을 폭발했다.

엄지성은 11일(한국시간) 영국 웨일스 스완지의 스완지닷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5-2026 FA컵 3라운드(64강전) 웨스트브로미치 엘비언과의 홈 경기에서 후반 3분 득점포를 가동했다.

팀은 비록 승부차기에서 패배했지만, 엄지성은 공식전 29경기 만에 시즌 2호골을 터뜨렸다.

지난해 11월 프레스턴 노스 엔드와의 14라운드에서 마수결이 골을 기록한 이후 약 두 달 만이다. 이로써 엄지성의 이번 시즌 공격 포인트는 2

골 2도움으로 늘어났다.

엄지성은 이날 왼쪽 측면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약 83분을 뛰었다.

전반부터 두 차례의 유효 슈팅으로 상대를 압박했고 0-0의 팽팽한 균형이 이어지던 후반 초반 마침내 선제골을 터뜨렸다.

엄지성은 페널티 지역 왼쪽 측면 라인에서 박스 모서리 부근으로 공을 몰고 들어가며 슈팅 각도를 만든 뒤, 과감한 오른발 슈팅으로 골문 상단 구석을 정확히 찼다.

축구 통계 전문 풋몹은 엄지성에게 양 팀 최고 평점인 8.3을 줬다.

엄지성의 선제골이 터진 지 5분 뒤에 동점골을 허용한 스완지는 연장전에서도 한 골씩 주고받는 치열한 접전 끝에 2-2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결국 승부차기에서 스완지는 5-6으로 패해 아쉽게 탈락했다.

/연합뉴스

광주FC, ‘원클럽맨’ 이민기와 2년 재계약

광주FC의 ‘원클럽맨’ 이민기(32·사진)가 위기의 팀을 지킨다.

광주는 12일 베테랑 풀백 이민기와 2년 재계약에 합의했다. 2016년 광주 유니폼을 입고 프로 무대에 데뷔한 이민기는 이번 계약으로 2027년까지 동행을 이어간다.

이민기는 군복무 기간을 제외하고 광주 선수로만 뛰어난 ‘원클럽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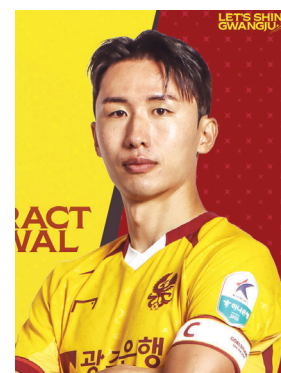
그는 지난 시즌까지 리그 통산 172경기에 나와 구단 역대 최다 출장 3위 기록을 가지고 있다. K리그1으로만 따지면 135경기에 출전한 구단 최다 출장 기록 보유자다.

상무 시절까지 포함하면 K리그에서 189경기를 뛴 베테랑이다.

안정적인 경기 운영 능력을 바탕으로 팀 수비의 핵심으로 역할을 해온 그는 2022년 K리그2 최다 승점·최다승 기록으로 ‘우승’을 경험했고, 2023년에는 구단 K리그1 역대 최고인 3위 달성에 기여했다.

그라운드 밖에서도 광주를 대표하는 선수로 활약을 펼쳐왔다.

이민기는 지난 시즌 주장을 맡고 ‘이정효호’를 대표하는 선수로 전면에 서서, 시도민구단 최초로 ACL 8강 진출을 이끌었다.



앞서 2024년에는 부주장을 맡아 주장 안영규와 함께 팀 구심점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정규 감독 체제로 새로운 시작을 맞게 된 을 시즌에도 베테랑이자 수비 핵심으로 역할이 막중하다.

이민기는 “프로 데뷔부터 지금까지 한 팀에서만 뛰어왔다는 점이 제게는 큰 자부심이다. 항상 믿고 응원해 주신 팬분들께 보답할 수 있도록 경기장 안팎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민기와 2년 재계약을 끝으로 선수단 연봉 협상을 마무리한 광주는 태국 후안인에서 2026 시즌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5일 후안인으로 이동한 광주는 26일까지 1차 동계훈련을 진행한다. 이후 남해에 2차 동계 훈련 캠프를 차리고 2026시즌 청사진을 완성하게 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